

“제2의 고향 광주서 변호인 사명에 충실하겠다”

서울지검 명퇴 후 광주에 둥지 튼 경기도 출신 김경근 변호사

광주지검서 두 차례 근무... 현재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 “지역민의 따뜻한 정·맛 잊을수 없어 가족들도 함께 내려왔죠”

18년간 입었던 법복을 벗었다. 법관이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개업을 선택한 지역이 고개를 가웃거리게 만든다.

김경근(50) 변호사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광주시 동구 지산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이우스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04년 검사에 임용돼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광주지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장을 끝으로 지난해 검사 생활의 마침표를 찍었다.

경기도 안산 출생으로 안양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광주와는 별다른 인연이 없는 그가 광주에서 변호사를 개업하게 된 이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2008년 광주검찰청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당시 행복하고 보람된 검사생활을 했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외지인인 저를 따뜻하게 맞아준 곳이 광

주였죠.”

김 변호사는 다섯 식구다. 당시 딸 둘은 유치원생이었는데 지금 막내인 아들이 태어난 곳이기도 한 데다 이어 고향인 안산으로 근무지가 이어지는 인연이 있는 곳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2020년 9월, 광주지검 공판부장을 맡아 또다시 광주로 향했다.

“부장검사로서 첫 부임지였는데 우연히 또 광주였어요. 이 정도 되면 인연이겠죠.”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마친 만큼, 서울 소재 대형 로펌에서 ‘함께 일하자’는 연락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법무법인 이우스 소속 변호사들이 손을 내밀었다.

“이우스 소속 사법연수원 동기들에게 안부차 연락을 했는데, 같이 해보겠느냐는 의외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개업지로 광주도 염두해 두고 있



김경근 변호사가 명예퇴직 당시 후배 검사들이 제작해 준 동판을 뒤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었는데 동기들 얘기를 듣고 쫓겼다고나 해야 할까요.”

그렇게 명퇴 한 달 만에 김 변호사는 광주지방변호사회에 영업 개시를 알렸다. 주변에선 고향이 광주냐는 농담도 들었다. 물론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다. 당장 서울생활에 익숙해진 가족들을 데리고 연고도 없는 지역에 내려오기란 쉬운 결정이 아니었

다. 그러나 가족들 모두 김 변호사의 결정을 존중해 줬다.

“아이들이 항상 아빠가 내리는 결정을 존중해 줍니다. 특히 올해 고2인 둘째 딸이 ‘가족은 함께 있어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줘 너무나 고마웠죠.”

김 변호사와 가족들 모두 광주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특히 맛의 고향 광주에선 음식과 관련해 타 지역보다 만족감이 높다. 게다가 전남의 경관은 어디에서 빠지지도 않는다.

검사에서 변호사가 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는 사건의 전환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첫 변호 당시에는 미리 써둔 의견서를 읽었다. 아무래도 첫 변호이다 보니 떨리기도 했고, 생각을 정리할 필요도 있었던 데다 막힘없이 말하고 싶었다.

김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했던 18년 6개월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일이었다면 이제는 죄가 있더라도 나름의 역할과 사정, 정정잡작할 만한 사유를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의뢰받은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로서의 역할, 기본적인 사명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여성 'BTS 제이홉 장학금' 수여

제이홉, 2019년 모교 법인에 1억 쾌척

전남여성상업고등학교는 지난 23일 '방탄소년단(BTS) 제이홉 장학금' 수여식을 열어 학생 10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광주 출신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본명 정호석)은 2019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 본부를 통해 모교인 국제고등학교 재단인 학교법인 춘대학원에 장학금 1억원을 쾌척했다.

이번 5차 연도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10명의 학생에게 1인당 50만씩 지급됐다.

현재까지 제이홉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총 50명



전남여성상업고등학교에서 열린 BTS 제이홉 장학금 수여식. (가운데) 제이홉 장학금 수여를 축하하는 방탄소년단 멤버 제이홉(본명 정호석)은 2019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지역 본부를 통해 모교인 국제고등학교 재단인 학교법인 춘대학원에 장학금 1억원을 쾌척했다.

조선대병원 '리더십 안전라운딩' 진행



조선대병원(병원장 김경중)은 최근 병원내 환자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통 중심의 '리더십 안전라운딩'을 진행했다. '리더십 안전라운딩'은 환자안전에 대한 병원 경영진의 관심과 의지를 전달하고,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환자안전 위험요인을 확인하며 개선을 위한 의견도 공유하면서 환자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선대병원 제공)

해양에너지, 광주시에 장학금 5000만원 기탁

(주)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희)는 지난 24일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광주시에 빛고을장학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사진> 기탁식에는 정희(주)해양에너지 대표이사, 오광호(주)해양에너지 경영마케팅본부장, 강기정(주)광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비즈니스룸에서 진행됐다.

광주시 '빛고을 장학금'은 1981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는 총 450명을 선발, 장학금 4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주)해양에너지는 매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 발전기금 및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날 기탁된 장학금은 전남대 등 광주지역 6개



해양에너지가 광주시에 장학금 5000만원을 기탁하는 모습. (가운데) 해양에너지 대표이사 정희(왼쪽부터)와 오광호(주)해양에너지 경영마케팅본부장, 강기정(주)광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비즈니스룸에서 진행됐다.

광주시청 김성준 주무관, 1년제 기술사 자격 2개 획득

광주시청 공무원이 '주경야독'을 통해 1년 사이 2개의 기술사 자격을 획득해 화제다.

광주시 도시공간국 도시계획과 김성준(시설 6급·사진) 주무관이 지난해 10월 건축시공기술사 자격 취득에 이어 최근 실시된 제129회 건설안전기술사에 최종 합격, 2개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게 됐다.

건설안전기술사는 산업안전관리론, 산업심리 및 교육, 산업 및 건설안전관련 법규, 건설안전기술(건축, 토목) 등에 관해 1차 필기, 2차 면접을 거쳐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건설안전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의 전문자격으로 평가받

고 있다.

특히 이 시험은 1차 시험(필기)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처럼 어려운 것으로 유명하다. 실제 최근 3년간(2020~2022년) 1차 합격률은 4.45%에 불과했으며, 올해도 5.27%에 그쳤다.

김 주무관은 "안전한 도시조성 트렌드를 반영한 전문지식을 얻고자 이번 자격증 시험에 도전했다"면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한 것이 자격 취득에 도움이 됐고, '안전도시 광주' 조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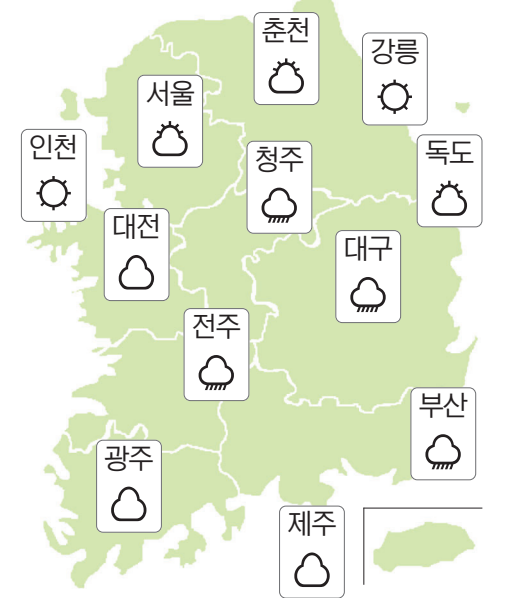
해돋이	05:22	달뜨기	10:45
해질름	19:37	달지기	00:32

가시거리 짚아오

새벽부터 저녁까지 전남 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광주	흐림	17/25	보성	비	15/22
목포	흐림	17/23	순천	비	16/23
여수	비	17/22	영광	흐림	16/25
나주	흐림	16/25	진도	구름많음	16/24
완도	흐림	17/23	전주	비	17/25
구례	비	15/24	군산	비	16/24
강진	비	16/24	남원	비	15/24
해남	구름많음	16/24	혁신도	흐림	15/20
장성	흐림	15/24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0.5~1.0	0.5~1.0
	면바다(북)	0.5~1.5	0.5~1.5
	면바다(남)	0.5~1.5	0.5~1.5
남해서부	앞바다	0.5~1.0	0.5~1.0
	면바다(서)	1.0~2.0	1.0~2.0
	면바다(동)	1.0~2.0	0.5~1.5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2:01	06:23
		23:33	18:10
여수		07:13	01:00
		19:10	12:50

◇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주의	높음	보통

◇ 주간 날씨

27(토)	28(일)	29(월)
18/27	19/25	20/25
30(화)	31(수)	6/1(목)
19/25	17/25	17/27

생활 게시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6일 (음 4월 7일 甲申)

☎ 010-9790-8237

하축

▲김중문·이순례씨 아들 문수군, 서상우(전 광남일보 편집부국장·전 화순전남대병원 홍보팀장)·백양숙씨 딸 혜정양=27일 오후 12시 광주 서구 제이아트웨딩홀 3층 알뜰채움.

▲이인석·설은영씨 아들 진웅군, 박공재·이효경씨 딸 수빈양 = 27일(토) 오후 12시 50분 광주 라뷰웨딩홀 3층 베일리움.

알림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子	36년생 명쾌한 징후가 될 것이니 무시하지 말라. 48년생 파도가 높으니 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60년생 불가늠한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오히려 약제를 불러들이는 격이 된다. 72년생 단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뿐이니 과념치 말라. 84년생 집요하게 파헤쳐야 드러나겠다. 96년생 처음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행운의 숫자 : 20, 65
辰	37년생 단순한 비교는 편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49년생 핵심을 벗어나면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61년생 지극 실행하지 않으면 후회, 막급할 것이다. 73년생 기묘한 기운이 휘몰아치니 이번이 예상된다. 85년생 가까스로 벗어나게 되는 형상이다. 97년생 신속하게 처리하면 상당한 재물을 얻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3, 71
丑	38년생 예상하지 못했던 신기함을 경험하게 되리라. 50년생 가는 말이 고야야 오는 말도 고운 법이다. 62년생 바람직한 형국으로 펼쳐지고 있으니 당당하게 나서도 되는 때이다. 74년생 가만히 살펴보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 86년생 행운의 바다로 나가고 있으나 배가 너무 작다. 98년생 처음부터 점검해야 했다. 행운의 숫자 : 10, 98
寅	39년생 지속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 51년생 발전의 기운이 솟아올라게는 형상이로다. 63년생 결과까지 보장된 것은 아니므로 설계를 잘해야 한다. 75년생 우회하더라도 지장이 없으니 착실하게 임하라. 87년생 작은 현상이나 대범하게 넘길 수 있어야겠다. 99년생 선인이 형성되어 발전적인 상황으로 작용하리라. 행운의 숫자 : 19, 79

巳	40년생 양자를 비교해보면 즉시 알 수 있으리라. 52년생 형세가 바뀌면서 무의미해진다. 64년생 뜻은 좋지만 현실적인 한계 앞에서 노심조사할 수다. 76년생 난해했던 부분이 시원스럽게 풀리는 열쇠를 갖게 된다. 88년생 마음에 드는 쪽으로 택하면 무방하다. 00년생 쓸모없다고 생각해 왔던 것이 오히려 유용하다. 행운의 숫자 : 38, 56
申	41년생 국면을 타개하는데 있어서 하등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53년생 복록과 약제가 섞여 있어서 중첩을 수가 없다. 65년생 믿고 추진해도 하등의 문제점이 없었다. 77년생 배배하려고 하면 할수록 실수가 잦아지는 법이다. 89년생 참으로 쉬운 일이니 전혀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01년생 그러대로 양호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7, 50
酉	42년생 중심을 벗어나면 결투 수밖에 없다. 54년생 제게 맡긴 것을 잘 살펴보고 돌보아야 할 것이다. 66년생 여러 사람의 부러움을 한 몸이 사게 되리라. 78년생 힘들다고 하여 회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라. 90년생 지나치다면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 02년생 함께하되 굳이 상호 동일할 필요까지는 없다. 행운의 숫자 : 28, 90
戌	43년생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다뤄져야 한다. 55년생 뻥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달레마에 빠질 수 있느니라. 67년생 발상은 참 신선하나 진행 속도는 점진적이야만 하느니라. 79년생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중극적인 결과는 같다. 91년생 대박으로 인해서 부가적 이익이 따른다. 03년생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 상황이다. 행운의 숫자 : 21, 57

亥	44년생 실효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핵심 요건이로다. 56년생 균형 감각을 상실한다면 곤란해질 것이다. 68년생 시종일관 신중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80년생 기회들이 연달아 다가올 수이다. 92년생 부탁하러 갔다가 오히려 칭을 듣고 오는 격이로다. 04년생 효과가 미치지 않는 범위에 놓여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49, 66
	45년생 걸림돌부터 치우고 불 일이다. 57년생 지금은 힘들더라도 점점 수월해질 것이니 진중하게 진행하라. 69년생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생산적이다. 81년생 예상했던 대로 별 없이 진행되리라. 93년생 조처해야 할 일들이 많아져 복잡다단하다. 05년생 어려움은 잠시일 뿐이니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하라. 행운의 숫자 : 11, 51
	34년생 얻는 바가 많고 호평을 들을 수도 있다. 46년생 예상했던 대로 별 없이 진행되리라. 58년생 마무리의 처리가 가차의 고저를 좌우한다. 70년생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억지로 따라야 하는 입장이다. 82년생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행동하는 이가 있다. 94년생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5, 61
	35년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절실하다. 47년생 과거에 만난 인연이 현재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사세이다. 59년생 역행한다면 재앙을 부르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느니라. 71년생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83년생 빨리 포기할수록 생산적이나라. 95년생 대범한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14, 78